

## 독자, 서평지와의 즐거운 만남을 위하여 독자와의 적극적 만남 위한 서평지의 변화 필요한 때

마음에 담아야 하는 책은 발품을 팔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터라, 인터넷 서점이 일상화된 지금도 광화문 주변 대형서점들과 곳곳에 있는 듯 없는 듯 자리 잡고 있는 헌책방을 기웃거린다. 그러나 대형서점이든 헌책방이든, 그곳에서 원하는 책을 빨리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게 인터넷 서점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아내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한다.

### 독서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서점의 적극적 역할



장 동 석  
〈출판저널〉 편집장  
bogus@kpa21.or.kr

그러나 인터넷 서점은 약간의 실망을 갖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세상 모든 책이 나름의 가치가 있고, 읽을 가치가 있으며, 편집자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것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모든 독자에게 모든 책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며,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의, 인터넷 서점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발동한다.

인터넷 서점의 도서정보는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 인터넷 서점에서 독자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고

독자 서평 코너에서 보여주는 필자들의 신간에 대한  
 폭넓은 독서와 그 해박한 지식은 서평 잡지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정도이다. 인터넷 서점은 이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있지만, 인터넷 서점의 도서정보는 대략의 정보 대여섯 줄, 저자 소개, 목차, 그리고 출판사 서평으로 이어진다. 도서정보 코너에서는 책의 줄거리와 책의 가치가 소개되는데, 이는 대부분 출판사의 보도자료가 바탕이 된다. 때문에, 인터넷 서점의 도서정보는 책의 긍정적인 부분과 역할에 대해서만 소개된다.

물론 각 출판사의 마케팅적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 누구라서, 자신이 만든 책의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겠는가. 여기서 인터넷 서점의 적극적 역할이 대두된다. 독자가 좋은 책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근 독자들이 책을 구입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인 인터넷 서점들이 책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최근 각 인터넷 서점에 독자서평 코너가 확대되면서 신간 도서의 진면목을 빠르게 전해주는 발 빠른 움직임을 인터넷 서점들과 독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독자 서평 코너에서 보여주는 필자들의 신간에 대한 폭넓은 독서와 그 해박한 지식은 서평 잡지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정도이다. 인터넷 서점은 이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신문, 유용하지만 그 한계를 아쉬워하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만으로는 책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거창하게 책의 역사를 논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마다 수만 종의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 책들 중 대부분은 한두 달이 못되어 독자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나게 마련이다. 매출과 직결되는 신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서점의 구조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흔히 구간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나 양서로 독자들의 손에 다시금 들려져서 읽혀져야 하는 책들은 누가 대변할 것인가.

다소 주춤하지만 도서정보를 소개하는 일간지 주말판이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간지의 책 소개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서점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일간지의 도서 소개는 ‘평(評)’ 보다는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 간추린 책 정리 내용만으로도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평가가 없는 탓에 독자들의 판단을 돕는 유용한 정보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신문마다 자사의 성향에 따라 특정 도서를 집중보도하기 때문에 그 신선함을 떨어지게 마련이다. 특정 저자의 책이 발행 때마다 소개되는 것도 신문 도서정보의 단점으로 지적할 만하다. 짧은 생각이지만, 서평지의 역할이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 서평지의 변화와 진로 모색을 위한 제언

요즘 잡지는 사양 산업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 것이 현실이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전문가급 서평자들의 속도 역시 이겨낼 수 없다. 결국 서평지라는 틀거리로 세상과 만나는 잡지들은 ‘저널리즘 리뷰’라는 창을 통해 독자들에게 신간은 물론 과거에 발간된 책들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평지들은 출판이라는 굴레를 조금은 벗어버려야 한다. 전통적으로 서평지는 출판계 종사자거나 도서관에서나 보는 책으로 치부되어 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일반 독자들에게 직접 책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평지의 앞날은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독자들의 선택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춰 ‘저널리즘 리뷰’를 담아야 한다. 기존의 독자인 지성인들을 품으면서 일반 독자들의 끌어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디자인 적인 면에서도 쇄신이 필요하다. 많은 책들이 시각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는 마당에 서평지만이 고고하게 텍스트만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와의 공존과 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44)